

기아, '더 2025 카니발' 출시...안전·편의사양 강화

국내 완성차 판매량 2위 인기 차종...10개월만에 연식 변경 모델 내장 색상 베이지·그레이 추가 선택권 넓혀...가격 3551만원부터

기아가 15일 국내 대표 대형 RV 차량인 카니발의 연식 변경 모델 'The 2025 카니발'을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The 2025 카니발은 소비자들이 선택이 잦은 안전, 편의사양을 기본사양에 추가하거나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올초 4세대 카니발의 페이스 리프트 모델 '더 뉴 카니발'을 출시했는데, 10개월 만에 연식 변경 모델을 또다시 선보인다.

카니발은 동일 라인업에서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모델로 올 3분기까지 6만2352대 판매고를 올리며 기아 쏘렌토(6만7314대)에 이어 국내 완성차 5개 회사의 판매량 2위에 오르는 등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기아는 시장 점유율을 이어가기 위해 The 2025 카니발 상품성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모든 트림에 조향 제어 방식을 보강해 기존

대비 차로 중앙 유지 성능을 향상시킨 '차로 유지 보조(LFA) 2'와 정전식 센서를 활용한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 등 신규 사양을 기본 적용했다.

또 기존에 선택사항이었던 '기아 디지털 키 2',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등 편의 사양을 시그니처 트림부터 기본으로 장착해 고객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최상위 트림인 그레비티를 구매하는 고객은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스노우 화이트 펄' 외장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노블레스 트림에는 '코튼 베이지'와 '네이비 그레이' 내장 색상을 추가해 고객 선택권을 넓혔다.

The 2025 카니발 9인승의 트림별 가격은 3.5 가솔린 기준 ▲프레스티지 3551만 원 ▲노블레스 3991만 원 ▲시그니처 4356만 원이다. 2.2 디젤의 경우 ▲프레스티지 3746만 원 ▲노블레스 4186만 원



▲시그니처 4551만 원,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프레스티지 4006만 원 ▲노블레스 4446만 원 ▲시그니처 4811만 원이다.

7인승의 트림별 가격은 3.5 가솔린 ▲노블레스 4250만 원 ▲시그니처 4636만 원, 2.2 디젤 ▲노블레스 4443만 원 ▲시그니처 4829만 원,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노블레스 4700만 원 ▲시그니처 5086만 원이다.

디자인 특화 트림인 그레비티는 시그니처 트림에 9인승 기준 103만 원, 7인승 기준 82만 원 추가 시



기아는 15일부터 '더 뉴 카니발'의 연식 변경 모델 'The 2025 카니발' 본격 판매에 돌입한다. 사진은 'The 2025 카니발' 내·외관. (기아 제공)

선택할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카니발은 독보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상품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모델"이라며 "The 2025 카니발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안전·편의사양을 추가해 국내 대표 레저용 차량(RV)으로서 모든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고차 시장 가장 많이 팔린차 모두 경차 1위 기아 '모닝'·2위 쉐보레 '스파크'

3위 현대 그랜저·4위 기아 뉴레이

올해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 1, 2위는 모두 경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자동차 통계 전문 업체인 카이즈데이터에 따르면 올 3분기(1~9월)까지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기아 '모닝'(사진)으로 3만4660대가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2위 역시 경차인 쉐보레 '스파크'로 3만593대가 거래됐다.

두 차량에 이어 현대 '그랜저(HG)'가 3만398대 거래되며 3위에 올랐으며, 기아 '뉴레이'(2만1950대), 현대 '그랜저 IG'(2만1626대) 순이었다.

수입차 중에서는 벤츠 E클래스(5세대)가 2만424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라이벌인 BMW 5시

리즈(7세대)가 1만567대, 5시리즈(6세대)는 8750대였다. 4위와 5위는 각각 6867대와 5821대가 거래된 벤츠 S클래스(6세대)와 C클래스(4세대)였다.

올 3분기까지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된 차량은 누적 178만3442대로 전년 동기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 연료별로 보면 휘발유 차량(85만8386대)

이 가장 많았고 경유(41만2915대), LPG(13만2781대), 하이브리드(6만6825대), 전기(2만4924대) 등 순이었다.

중고차 매입 연령대는 40대가 35만3662대로 가장 많이 사들였고, 50대 35만1078대, 30대 30만8967대, 60대 20만1831대, 20대 13만994대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벤츠 'EQS 450' 주한독일대사 공무용 차 선정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 EVA2 기반 모델...1회 충전 최대 454km 주행



메르세데스-벤츠의 EQS 450 4MATIC가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의 공무용 차량에 선정됐다. <사진>

주한독일대사관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메르세데스-벤츠의 순수전기차이자 플래그십 모델인 EQS 450 4MATIC을 공무용 차량으로 선정했다고 벤츠는 설명했다.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는 "주한독일대사관은 한국의 지속가능성 및 청정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 차량을 그린 모빌리티로 개선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대사관 업무 차량으로 벤츠의 순수전기차를 선정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전기 모빌리티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전했다.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는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지속가능성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대표하는 차량을 공무용으로 선택해주신 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QS 450 4MATIC은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 EVA2를 기반으로 개발된 모델로, 벤츠의 철학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첨단 기술을 대거 탑재했다. 107.8kWh 배터리를 1회 충전 시 최대 454km 주행이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내 중형 SUV 시장 쏘렌토·싼타페 독주체제 흔들

KGM·르노 신차 판매 선전 점유율 두 달새 10%P 하락

쏘렌토와 싼타페가 양분하고 있는 국내 중형 SUV 시장에서 KGM과 르노가 뛰어들면서 시장 지형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KGM과 르노가 최근 내놓은 차량 판매가 늘면서 쏘렌토, 싼타페의 점유율은 두 달 새 1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1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 9월 KGM '액티언'과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는 각각 1686대, 3900대 판매되며 국산 중형 SUV 시장(2만2525대)에서 합산

24.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지난 7월부터 판매량이 집계되기 시작한 두 모델은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달 두 모델의 중형 SUV 시장 내 합산 점유율은 8월(5.1%)보다 19.7%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경쟁모델로 꼽혀왔던 현대차그룹 싼타페와 쏘렌토의 중형 SUV 시장 점유율은 11.7%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7월까지만 하더라도 중형 SUV 시장의 64.7%를 점유했던 쏘렌토·싼타페는 2개 경쟁 모델이 출시된 이후 8월 56.8%, 지난달 53.0%로 점유율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세그먼트를 넓혀 준중형·중형 SUV를 합친 시장을 보더라도 액티언과 그랑 콜레오스는 8월 3%

포인트, 지난달 16.8%포인트의 시장 점유율을 신규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아의 대표 준중형 SUV 스포티지의 점유율은 7월 19.2%에서 9월 13.7%로 5.5%포인트 하락했으며, 싼타페와 쏘렌토도 각각 0.2%포인트, 3.4%포인트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수년간 유지돼온 중형 SUV 모델 라인업에 새로운 경쟁모델이 등장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보고 있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신차 출시 이후 반짝 판매량이 올라가는 일시적 효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는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지켜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기아, 다문화 사회 공헌사업 '하모니움' 전개

다문화 청소년 사회 진출 등 지원

기아가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인 '하모니움'(Harmonium)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성장을 돕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선다.

하모니움은 조화를 뜻하는 '하모니(Harmony)'와 새싹이 돋는다는 의미를 가진 '움프다'의 합성어다. 기아는 하모니움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하모니움은 크게 다문화 청소년 자립 지원, 다문화 가정 사회적 인식 개선의 2가지 영역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다문화 청소년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다문화 청소년이 진로 계획을 수립·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다. 언어나 문화교육, 적성검사 등에 그쳤던 기존 사업과는 차별화되는 점이다.

기아는 이를 위해 사회·경제 교육부터 코딩, 영상기획 등 특화 교육까지 전문 강사진을 투입해 진로 탐색과 계획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하모니움

아울러 다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별도의 거점 교육 공간을 마련해 진로·심리 상담, 동기부여 특강을 실시하고, 온라인 플랫폼 제작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취업 정보도 제공한다.

기아는 내년 1월부터 연간 50명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아는 하모니움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노력한다.

첫 단계로 오는 26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오프라인 행사인 '하모니움 페스티벌'을 열어 토크 콘서트, 야외 음악회, 플리마켓 등을 진행한다. 기아는 페스티벌 기간 다문화 청소년 지원 유관 단체와 자립 지원 사업에 관해 논의하는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추후 다양성, 포용성의 가치를 주제로 한 영상 캠페인도 제작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영국 자동차 매거진 선호도 투표 아이오닉 5 N, 테슬라 모델 압도

69표 받아 경쟁모델 4배 웃돌아

현대차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 N(사진)이 영국 자동차 전문지의 선호도 투표에서 미국 테슬라의 경쟁 모델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영국 '카매거진'은 지난 달 1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이오닉5 N과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의 비교 시승 콘텐츠를 공개했다.

카매거진의 제임스 데니스 레이서는 두 모델을 번갈아 시승한 뒤 "테슬라는 최고의 전기차를 꼽자면 항상 포함될 만한 하지만, 내게 승자는 아이오닉5 N"이라며 "왜냐하면 그제(운전자) 가장 즐겁다. 다양한 장치와 뛰어난 'N e-드라이브'(가상 변속 시스템)를 갖춘 데다 최고의 고성능 차의 자질을 가졌다"고 호평했다.

그는 "아이오닉5 N은 정말 매력적이고 유머 감각도 있어 그냥 즐기기에 운전하고 싶게 만

든다"고 덧붙였다.

카매거진이 이번 콘텐츠의 댓글을 통해 시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호 모델 투표에서는 전날 오 후까지 아이오닉5 N이 69표를 받아 모델3 퍼포먼스(16표)를 4배 이상 웃돌았다.

시청자들은 "조립 품질, 디자인, 운전의 즐거움 면에서 아이오닉5 N은 의심할 여지 없이 최고", "운전하는 과정이든 단순히 디자인이든 아이오닉5 N이 훨씬 더 재미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또 "현대차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델을 잘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 등 현대차 자체에 대한 칭찬도 나왔다.

카매거진은 앞서 지난 6월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파이팅'과 함께 실시한 고성능 전기차 비교평가에서도 아이오닉5 N을 최고의 전기 스포츠카로 뽑은 바 있다. 당시 아이오닉5 N은 BMW i5 M60, 포르세 타이칸 터보 GT 등 글로벌 브랜드들의 대표 고성능 전기차와 겨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